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22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roduct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including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IB. Additionally, the license tied with this product prohibits use of any selected files or extracts from this product. Use by third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shers, private teachers, tutoring or study services, preparatory schools, vendors operating curriculum mapping services or teacher resource digital platforms and app developers, whether fee-covered or not, is prohibited and is a criminal offense.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quest written permission in the form of a license can be obtained from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 Organisation du Baccalauréat International 2022

Tous droits réservés. Aucune partie de ce produit ne peut être reproduite sous quelque forme ni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électronique ou mécanique, y compris des systèmes de stockage et de récupération d'informations, sans l'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e l'IB. De plus, la licence associée à ce produit interdit toute utilisation de tout fichier ou extrait sélectionné dans ce produit. L'utilisation par des tiers, y compris, sans toutefois s'y limiter, des éditeurs, des professeurs particuliers, des services de tutorat ou d'aide aux études, des établissements de préparation à l'enseignement supérieur, des fournisseurs de services de planification des programmes d'études, des gestionnaires de plateformes pédagogiques en ligne, et des développeurs d'applications, moyennant paiement ou non, est interdite et constitue une infraction pénale.

Pour plus d'informations sur la procédure à suivre pour obtenir une autorisation écrite sous la forme d'une licence, rendez-vous à l'adresse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 Organización del Bachillerato Internacional, 2022

Todos los derechos reservados. No se podrá reproducir ninguna parte de este producto de ninguna forma ni por ningún medio electrónico o mecánico, incluidos los sistemas de almacenamiento y recuperación de información, sin la previa autorización por escrito del IB. Además, la licencia vinculada a este producto prohíbe el uso de todo archivo o fragmento seleccionado de este producto. El uso por parte de terceros —lo que incluye, a título enunciativo, editoriales, profesores particulares, servicios de apoyo académico o ayuda para el estudio, colegios preparatorios, desarrolladores de aplicaciones y entidades que presten servicios de planificación curricular u ofrezcan recursos para docentes mediante plataformas digitales—, ya sea incluido en tasas o no, está prohibido y constituye un delito.

En este enlace encontrará más información sobre cómo solicitar una autorización por escrito en forma de licencia: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2 – Reading comprehension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2 – Compréhension écrite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2 – Comprensión de lectura

Tuesday 10 May 2022 (afternoon)
Mardi 10 mai 2022 (après-midi)
Martes 10 de mayo de 2022 (tarde)

1 h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accompanies paper 2 reading comprehension.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accompagne la partie de l'épreuve 2 portant sur la compréhension écrite.

Cuadernill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ill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illo acompaña a la parte de comprensión de lectura de la prueba 2.

본문 A

전통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전시실에 들어서니 소인국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작은 세상을 만든 기흥성 관장은 1938년, 지금은 북한 땅인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 남한으로 왔다. 어릴 때부터 만들고 그리는 데 재주를 보였던 그가 모형 제작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967년부터였다.

5 전통 건축 모형

그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은 그는 서른한 살 이른 나이에 팀장 역할을 맡게 됐고,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형 제작을 도맡다시피 했다. 그의 모형들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사를 알 수 있을 정도다.

10 현대 건축으로 시작한 그의 작업은 전통 건축물을 재현하며 무르익었다. 국립박물관에서 주문한 황룡사 9층 목탑 모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신라 시대 최대의 호국 사찰이었던 황룡사는 1238년 몽고 침략으로 9층 목탑과 전각까지 모조리 불에 타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기 관장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탑을 추정해 높이 4m의 모형으로 재현했다.

15 그는 “1980년대에 건축·고고학·미술사 등 여러 분야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3년 만에 추정 복원 설계도를 완성하고, 제작에만 5년이 걸렸다”며 “현존하지 않는 탑을 추정 복원하는 작업이라 가장 힘이 들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했다. 당시 국내외에서 “찬란했던 신라 건축이 되살아났다”며 극찬을 받았다.

20 “한국 고건축에서는 선이 매우 중요해요. 살짝 올라간 처마의 곡선,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들려 있는 그 미묘한 차이를 감각으로 해내야 하거든요.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능력에 탄복합니다. 현대 건축물은 이 멋을 못 따라가죠. 전통 건축이 현대 건축물보다 훨씬 더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들도 여기에 손대려면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꿈

25 온라인으로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에 모형이 왜 필요할까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실제 건축물을 짓기 전 완공 뒤의 모습을 미리 살펴보고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지 등을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설계 의도를 정확히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도면대로 건물 하나를 짓는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한다”고 했다. “모형 제작은 사라져 가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이자,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지요. 50년 넘게 오로지 이 30 한길만 걸어온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B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통장¹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²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2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³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3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1 행정 구역 단위인 통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
 2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3 ‘동 주민 센터’의 전 이름

본문 C

배달문화, 좁은 영토에서 꽃피다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한국은 음식이면 음식, 물건이면 물건,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배달서비스가 발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영토가 좁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빨리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좁은 영토 속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일명 5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했다. 요즘 배달문화는 지하철 킥서비스부터 24시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배송 대행서비스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 24 -]

한국은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부터 면류, 식사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배달 10 가능하지만 외국은 패스트푸드 외의 다른 음식들을 배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다른 한국만의 배달문화로는 야외로 배달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집이나 회사가 아닌, 특정한 주소를 설명할 수 없는 야외의 어느 곳까지 배달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에는 배달을 받는 구역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국에서 15 지정된 주소가 아닌 야외로 배달해주는 것 또한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5 -]

배달문화는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탄생했다. 전화로 20 주문하는 것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여 배달해주는 형식이다. 장한(영상 18) 학우는 “평소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한다”며 “전화로 주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 26 -]

배달문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선 개인정보 25 유출이다. 전화로 배달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가게에 전화를 건 개인 번호와 함께 자신의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치킨 배달을 시켰던 여성이 배달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의 ‘안심번호’, ‘바로 결제’ 등의 서비스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잠재되어 있는 위협으로 남아있다.

[- 27 -]

또 다른 문제로 배달원의 안전 문제가 있다. 더 빨리 배달을 하고자 하는 업체 간의 경쟁 30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용 노동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1천 568명의 배달원이 음식 배달업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러한 안전

35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배달비를 꼭 받아야 한다”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돼야 배달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배달원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며 “배달에 대한 적절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될 때 배달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Disclaimer/Avertissement/Advertencia:

Content used in IB assessments is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or publishe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Le contenu utilisé dans les évaluations de l'IB est extrait de sources authentiques issues de tierces parties. Les avis qui y sont exprimés appartiennent à leurs auteurs et/ou éditeurs, et ne reflètent pas nécessairement ceux de l'IB.

Los contenidos usados en las evaluaciones del IB provienen de fuentes externas auténticas. Las opiniones expresadas en ellos pertenecen a sus autores y/o editores, y no reflejan necesariamente las del IB.

References/Références/Referencias:

본문A 허윤희, 2021. 전통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Koreana*, [online] Available at: <https://www.kf.or.kr/koreana/na/ntt/selectNttInfo.do?mi=1069&bbsId=1115&nttSn=25> [Accessed 5 October 2021]. Source adapted.

본문B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0.

본문C 이채홍, 2014. 배달문화, 좁은 영토에서 꽃피다. *성대신문*. Available at: <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8>.